네팔 대홍수 현장 찾아 불교계 온정 전해

홍대선원, 누와코트 교량 복구 추진
더프라미스 긴급구호단 '맞춤 지원'
화정·경우 스님, 봉녕사·선우회 피해 복구 위한 기금 전달 잇따라

임은호 · 이현희 기자



더프라미스 긴급구호단은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네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갔다. 사진은 9월 17일 다딩 지역 15가구에 식량키트를 전달한 모습.

한국 불교계가 대홍수로 고통받는 네팔 피해 현장을 찾아 교량 복구 추진 등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JustBe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최근 네팔에 입국해 피해가 심각한 누와코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준한 스님에 따르면 현지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량 붕괴로 인한 지역 고립이었다. 홍수로 여러 다리가 무너지면서 마을 간 이동이 쉽지 않아 식량과 구호물자를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대선원은 누와코트 지역 출렁다리 복구·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홍대선원은 대홍수 직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했다. 약 600명이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긴급구호 성금은 총 1억원에 이른다. 홍대선원은 성금을 피해지역 교량 복구·건설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슈탐 라미차네 지역구 국회의원 측은 최근 누와코트와 라수와 사이 트리슐리강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후보지를 복구 대상 교량으로 공식 제안한 상태다.

준한 스님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구호물자가 오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라며 "이번 구호 활동이 재난으로 단절된 사람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자비행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도 9월 8일부터 20일까지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현지 NGO 'CFO Nepal'과 함께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갔다.

긴급구호단은 △피해 마을 100가구 '리빙키트' 지원(누와코트) △무너진 학교 교실 복구(다딩) △860가구 식량 지원(라수와) △사찰 대피소에서 돌아온 298가구 식량 지원(카트만두)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15가구 식량 지원(다딩) △교량 붕괴로 등교하지 못한 200명 학생의 기숙사 복구(누와코트) 등을 통해 지원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네팔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모연에도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원 화정 스님(평택 명법사 회주)은 10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와 봉녕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선우회(회장 설오 스님)도 총동문회를 주축으로 마련한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10월 7일 주지 임명장 수여 직후 기금 3000만원을 기부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진우 스님은 감사를 표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은 불교가 앞장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기자칼럼

산문을 열다, 마음을 열다

전국의 고찰들이 산문을 활짝 열었다. 절이 처음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재(開山大齋)'가 잇따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찰의 개산대재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과거 스님과 신도 중심의 엄숙한 종교의식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통도사는 개산 1381주년을 맞아 천년 역사를 간직한 괘불을 특별 공개하고 화려한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고즈넉한 산사가 환상적인 빛으로 물드는 밤,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그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개산 1232주년을 맞은 도심 속 봉은사도 정대불사를 비롯해 왕실의 산책 퍼레이드, 사찰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한마당을 펼친다. 이 밖에도 가을을 맞아 산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는 사찰 문화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오대산문화축전을, 구례 화엄사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개산은 한자 그대로 '산을 연다'는 뜻이다. 스님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에 터를 닦고 절을 세운 일을 일컫는다. 얼핏 세상을 등진 '입산(入山)'과 닮았지만, 수행의 목적은 세상과 담을 쌓는 데 있지 않다. 깨달음을 구하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돌려주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절을 세운다는 것은 수행자만의 은둔처를 마련하는 일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찾아와 쉬고, 배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문 없는 문(無門關)'을 활짝 열어젖히는 선언이다.

사찰이 정성껏 준비한 행사와 밥 한 끼, 차 한 잔은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쉼 없이 달리던 사람들이 잠시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다독이는 '치유의 시간'이다. 다문화 가정을 초대하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나눔은 사찰과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히는 따뜻한 실천이기도 하다.

사찰 마당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과 따뜻한 불빛 속에는 '누구나 들어와 위로받고 쉬어 가라'는 천 년 전 스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엄숙주의를 벗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불교의 노력이 반갑다.

산을 열어 절을 세웠던 과거의 개산이 이제는 현대인의 마음을 여는 '새로운 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을, 가족들과 가까운 산사를 찾아 활짝 열린 '문 없는 문'을 넘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외불교계 AI 활용 방향 점검

조계종, 10월 28일 세미나 개최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불교계의 AI 활용'을 주제로 '2026년 해외불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 주제는 △미국: 디지털 멘탈케어 시장 내 명상 프로그램의 AI 기술 접목 현황(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일본: 교계 내 AI 로봇 도입 현황 및 종교적 영향 분석(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 △대만: 불광산의 사례로 보는 불교의 AI 발전과 응용(서울 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이다.

이현희 기자

JustBe 승가장학회…"출·재가 인재 양성"

10월 24일, 홍대선원서 출범식
1구좌 1만원부터 십시일반 가능

불교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출·재가 수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행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JustBe 승가장학회'가 출범한다.

JustBe 승가장학회(승가대표 준한 스님)는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홍대선원 5층 선불장에서 출범식을 거행한다.

'승가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JustBe 승가장학회는 출가를 결심한 이들의 첫걸음부터 수행자의 지속적인 공부와 교육,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불교 인재 양성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장학회 출범은 홍대선원이 지난 4년간 일궈온 수행 공동체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홍대선원은 2022년 개원 이후 세대와 국적을 넘어 수행자와 불자들이 함께 배우고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명의 발심 출가 스님이 탄생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공간에서 수행하고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온 경험은 수행 공동체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불사로 이어졌다.

JustBe 승가장학회는 출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행과 교육 과정, 미래 불교 인재 양성까지 출재가 수행자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장학 지원은 크게 글로벌 인재, 출가 첫걸음, 출가 승려, 청년 스태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JustBe 승가장학회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후원 방식도 마련했다.

정기후원은 월 1·2·3만원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첫걸음 펀드 30만원 10구좌, 자율후원 100·300·1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다. 창립기금 1000만원 후원도 가능하다. 010-8008-2423

후원 : 농협 301-0390-9845-31(대한불교조계종 홍대선원) 임은호 기자

불교활동가 후보 공모

10월 31일까지 접수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스님)이 10월 31일까지 '제23회 불교활동가' 후보자를 공모한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포교 현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홍포에 앞장서 온 활동가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계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재가 불자와 외국인 스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력서와 활동 내역서, 개인 또는 단체 추천서를 이메일(sulpub@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010-9004-2707 이현희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이광기

10월 27~30일 서울영화센터서
'이어짐' 주제로 국내외 53편 상영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집행위원장 지웅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영화센터에서 개최된다. 홍보대사에는 이광기 배우〈사진〉가 위촉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이어짐'을 주제로 노년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 세대 간 경험과 이야기를 영화로 나눈다. 국내외에서 총 530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영화 '첫 여름'을 개막작으로 열리며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SISFF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도슨트 초이스, 기억 아카이빙, 특별초청, SISFFF 명예의전당, 한국장편초청, 고전장편초청 등 다채롭게 준비돼 영화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홍보대사 이광기 배우는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를 넘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공식 홈페이지(sisff.seoulno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6220-8693 박지운 기자



'프춤번' 맞아 재한 캄보디아 주민과 화합의 장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10월 4일 여래마을에서 캄보디아 전통명절 '프춤번' 기간을 앞두고 재한 캄보디아 주민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법회와 탁발, 공양을 함께하고 캄보디아 전통공연을 즐기며 고국의 명절을 함께 기념했다. 이현희 기자

제5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대상·홍보상·생명상·나눔상 등
10월 23일까지 우편·이메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제5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부문은 △대상(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생명상(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나눔상(봉사·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이다.

양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www.lis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10월 23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1월 14일 '제16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올해의 포교사 — 충북지역단 남부불교문화봉사팀 김영매

말보다 행동으로, 함께하는 포교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청년시절부터 지역 포교 활동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봉고차에 태워 어린이법회를 이어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아이들과 도배 봉사를 해온 포교사가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역에서 묵묵히 전법행을 이어온 김영매(66)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남부불교문화봉사팀 포교사다.

9월 12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김 포교사가 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다.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하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20년간 건설회사에 종사하고 13년간 돌봄·보육사로 일하면서도 포교활동을 놓지 않았다. 2010년 15기 포교사 품수 후에는 지역 불법 홍포에 힘을 쏟았다. 충북지역단 팀장을 맡으면서 지역 축제 등에서 불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렸다.

그의 전법행 시작은 포교사가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탈골암 주지 혜운 스님이 보은 대원불교회관을 인수하면서 회관 관리를 맡게 된 것이 계기였다.

어느 날 법회에 참석한 어린이에게 "친구들도 함께 놀러 오라"고 권하면서 어린이법회가 시작됐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혜운 스님은 봉고차를 지원했고, 김 포교사는 직접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며 어린이법회를 이어갔다. 김 포교사는 아이들에게 자비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방학이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도 남겼다.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는데, 눈이 벌게져서 나왔어요. 검은 봉지를 들고 와서 할머니에게 건네더라고요. 먹을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지금도 뭉클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아이가 마음을 내어 준비한 것이었다.

그 아이는 청년이 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받았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자비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김 포교사는 지인들에게도 불교를 직접 권하기보다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준다.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종교가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교를 통해 좋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포교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먼저 움직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함께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전법이다. 그래서 이번 총무원장상도 혼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팀원들과 함께 애써서 얻은 결과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혼자보다 함께하는 포교. 김 포교사는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과 함께 전법의 길을 걷고 있다. 박지운 기자